

전주시, 피지컬AI 선도도시 도약 본격화

시, 전주형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피지컬AI·밸리·로봇부품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 성장거점 구축

전주시가 국가 차원의 피지컬AI 전략에 발맞춰 관련 산업 기반을 선점하고,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정부의 5급 3축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전북이 피지컬AI 분야 지역거점으로 지정되고, 피지컬AI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와 함께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피지컬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 사업’을 수행한 데 이어, 지난 4월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과 함께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 공모에 대응하는 등 산업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을 피지컬AI 산업 육성의 출발점으로 삼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으로 전문 장비와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기업의 AI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위험도 진단 △데이터·모델 검증 △안전성 분석 △신뢰성 보안 및 검·인증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지난달 30일에는 지역기업 24개사를 선정해 TTA의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인 CAT 획득을 위한 컨설팅과 검·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시험·검증 절차와 데이터를 ‘전주형 AI 신뢰성 모델’로 체계화하고, 이를 피지컬AI 분야로 확장해 전주를 AI·피지컬AI 시험·검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피지컬AI·밸리’를 중심으로 로봇·모빌리티·스마트 제조 분야의 기술 연구개발, 실증 시험·검인증, 사업화까지 지역기업의 AX를



민선 9기 도민주권 대전환 도-시군 상생발전 정책 라운딩

13일과 14일 1박 2일간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민선 9기 도민주권 대전환 도-시군 상생발전 정책 라운딩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14개 시군 기초단체장들이 맞손을 잡고 있다.

돕고, 관련기업·연구기관 유치, 인재 양성을 통해 전주형 피지컬AI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약 99만㎡(30만 평) 이상 규모와 광역교통망을 갖춘 지역에 연구·기업·교육·주거 기능이 집적된 1밸리 조성을 구상하고 있으며, 전주시 일원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 입지와 규모, 공간구성, 단계별 조성계획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시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로봇 제조 파운드리 투자와 연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주와 완주, 새만금의 피지컬AI 산업 역량을 연결하는 전북 AX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 AX 산업벨트는 전주·완주·새만금의 지역별 강점을 연계해 피지컬AI 기술개발부터 실증, 제조·양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권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핵심기술 개발과 데이터, 시험·검인증,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완주군은 산업현장 실증을 새만금은 로봇·핵심부품 제조·양산을 맡는다.

특히 시는 탄소·첨단소재와 제조산업 기반을 활용해 로봇 핵심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영커기업과 스타트업 유치, 지역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해 산업생태계의 중심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피지컬AI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AX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문인력부터 산업현장형 실무 인력까지 단계별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북대·전주대를 중심으로 AI·SW중심대학사업, 첨단산업(AI) 인재 양성 부트캠프 등 기존 인재 양성 사업을 피지컬AI 분야로 연계·확대하고, 폴리텍·비전대 등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대차그룹-전북대 간 피지

컬AI·로봇·수소에너지 첨단산업 계약학과 설립과 연계해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현장실습·취업·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피지컬AI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사업 발굴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피지컬AI 포럼을 개최해 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피지컬AI산업은 전주의 산업 지평을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전략에 발맞춰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견고한 생태계 구축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지컬AI 특별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노인일자리 우수사례 알리고, 개발원 유치 총력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 우수 노인일자리 현장 방문

지역 맞춤형 노인일자리 성과 공유 · 노인인력개발원 전북 이전 건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전북 우수 노인일자리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행정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익산 하림과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순창시니어클럽 등 3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살펴보고 참여 어르신과 수행기관의 의견을 듣는다. 전

북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리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 이전의 필요성도 적극 전달한다.

첫날인 13일에는 익산 하림에서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을 살펴봤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민간기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해 참여 어르신의 현장 경험과 고용 연계를 돕고 있다. 하림에는 올해 신규로 9명이 참여해 식

품공공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어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에서는 ‘인생이야기 기록작가단’ 사업을 소개했다. 참여 어르신들이 인터뷰어와 작가로 활동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호가족, 노인일자리 참여자 불분 대상자의 생애사를 구술로 기록하고 수기와 자서전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개인의 삶과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모델이다.

14일에는 순창시니어클럽을 찾아 ‘청춘드림워킹’과 ‘시니어자원순환단’ 사업을 살펴봤다.

청춘드림워킹은 다문화가족의 세척·살균·소독·검수·포장 등을 맡아

지역의 다문화가 사용 확대와 자원 절약에 기여한다. 시니어자원순환단은 순창군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재활용 자원을 수거하고 폐페트병과 폐편수막을 활용한 자원순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현장 방문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 이전 유치를 위한 계기로도 활용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 건의,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개발원과 전북의 노인일자리 정책 연계성 홍보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을 직접 방문해 전북 이전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활성화 논의

도, 민관합동 TF 킷오프 회의
농진청·대학·농어촌공 등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공영장 세미나실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새만금의 광활한 농생명용지를 활용해 새만금 국립수목원과 연계한 경관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관작물 재배를 관광과 연계해 새만금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관농업 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 방향과 단계별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실증연구를 확대하고 시범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등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80ha 가운데 7,275ha가 준공됐으며, 이 중 5,753.2ha가 농업생산과 시험·연구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새만금 간척지에서 나리와 초화류 등 경관작물 실증연구를 진행해 왔다. 도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증연구 확대와 시범단지 조성을 거쳐 대규모 경관농업 단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김제시, 농촌진흥청,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향후 원예·화훼, 산림·정원, 축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추가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TF 논의를 바탕으로 경관농업 단지의 적정 규모와 대상지, 경관작물,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새만금 국립수목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관농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새만금의 광활한 농생명용지에 경관농업을 접목하면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며 “새만금 국립수목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새만금이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표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지역식품 연구기관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지역식품 연구기관(7+1)협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농식품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와 국가연구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식품 연구기관(7+1)협의회는 도내 7개 시·군 출연 연구기관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자치도가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 정책 동향과 기관별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연구인프라 공동활용과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사업과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국립식량과학원과의 업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국립식량과학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농식품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전북현대모터스FC와 도내 5개 대학이 함께 추진하는 ‘Drive Up’ 창업 프로젝트의 오프라인 캠프가 열린다고 밝혔다. 13일 진행된 개회식에는 이원택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현대모터스FC 관계자, 도내 5개 대학 관계자와 대학생 등이 참석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격려했다.

대학생 아이디어, 전북현대 공식 굿즈로

전북현대FC · 도내5개 대학, 13~14일 Drive Up 창업캠프 개최

대학생 10팀 44명 참여… 아이디어 발굴·제품화·판매까지 경험

전북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가 전북현대모터스FC 공식 굿즈로 제작돼 실제 판매까지 이어진다.

도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전북현대모터스FC와 도내 5개 대학이 함께 추진하는 ‘Drive Up’ 창업 프로젝트의 오프라인 캠프가 열린다고 밝혔다.

‘Drive Up’ 창업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발굴한 친환경·임사이클링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고 판매하는 실천형 청년 창업 프로그램이다.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전북현대 공식 굿즈로 제작해 실제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창업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출범한 이 프로젝트에는 올해 국립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전주대 등 도내 5개 대학 재학생 10개 팀, 44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지난 6월 선발된 이후 두 차례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전북현대와 연

계한 공식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 전략을 다듬어 왔다. 14일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가린다. 최종 평가 1위팀의 아이디어는 실제 전북현대모터스FC 공식 굿즈로 제작된다. 8월 말부터 제품 제작에 들어 오는 11월 전북현대 오피셜 스토어와 팝업스토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수익은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창업 경험에 더해,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연계한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과정은 청년들에게 값진 창업 경험이 될 것”이라며 “지역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추석 앞두고 산림조합 벌초 대행 서비스 운영

전화·인터넷·모바일 신청…GPS 활용 위치·관리이력 체계적 관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기 어렵거나 직접 묘지를 관리하기 힘든 도민들을 위해 도내 13개 산림조합을 통한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는 묘지가 소재한 지역 산림조합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forestnfc.or.kr)과 모바일(mnfc.or.kr)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산림조합이 현지 답사를 통해 묘지 위치와 작업 여건을 확인한 뒤 이용자와 비용을 협의해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이 끝난 뒤에는 결과 사진을 신청인에게 보내 벌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묘역 면적과 차량·도보 이동거리, 묘지 수, 주변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해 각 지역 산림조합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지역별 기본요금은 9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청 단계에서 해당 산림조합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산림조합원은 5~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연속으로 벌초를 의뢰한 고객에게는 5%의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미리 묘지 소재지 산림조합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 법과 원칙 따라”

군산 범시민위 · 어촌계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군산 범시민위원회와 어촌계가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 범시민위원회·어촌계는 이날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기능을 넓히고 서해권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건설하는 국가관리무역항”이라며 “단순한 매립지나 주변 시설과의 연결만으로 관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제시가 최근 발표한 ‘새만금신항 관할 정치적 안배 아닌 법과 원칙으로 결정해야’라는 보도자료와 관련, “제2호 방조제와 스마트수변도시가 연결된다는 이유만으로 관할권이 김제시에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항만의 조성 목적과 기능적 연계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스마트수변도시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복합도시로 특정 항만의 전용 배후도시가 아니다”며 “일반 매립지 관할 결정 사례를 국가관리무

역항인 새만금신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경쟁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항만이 아니라 군산항의 기능을 넓히고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항만”이라며 “두 항만을 인위적으로 나누려는 주장은 국가 항만 운영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특정 지역에 치우쳤다”는 논란이 생기기 않도록 해양항만 행정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시를 항해서는 일방적인 새만금신항 관할권 주장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이와함께 군산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는 새만금신항은 군산의 해양주권과 서해권 물류 경쟁력이 걸린 국가적 현안이라며 정당과 이해관계를 떠나 관할권 수호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군산=김만호 기자